어린이 책꽂이

▲깡마른 마야=몸과 마음이 모두 부재중인 아빠, 첫딸의 죽음에만 집착해 살아있는 딸은 돌볼 줄 모르는 엄마. 상처 가득한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아 헤매는 열 여섯 소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시공사·7천원〉

▲구름을 삼켰어요=상상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른들의 억압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후 어른들의 반성과 노력으로 다시 사회와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프랑스 동화다.

〈창비·7천500원〉

▲전학 온 첫날=베트남에서 전학 온 소녀 파리아가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에게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낯선 친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배려심을 가르쳐준다.

〈시공주니어·5천500원〉

▲먼 옛날 와가이 강가에서 생긴 일='정글북'의 작가 러드 야드 키플링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원시인 부녀가 그들만의 문자인 알파벳을 만들어 다른 부족들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서강북스·9천원〉

▲20인의 수학자 편지=단순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수학자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편지로 담았다. 수학자들의 다양한 습관과 일화를 20여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엮었다.

〈거인·1만원〉

왜 축의금은 홀수 단위로 낼까

정말 궁금한 우리예절… 이창일 지음

축의금 낼 때 3만원을 내자니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5만원을 내자니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왜 축의금은 홀수로 내야만 할까? 궁합은 꼭 봐야하나? 명당은 무엇일까? 제사상에 바나나, 파인애플을 올려놓으면 안될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런가 보다'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관(冠), 혼(婚), 상(喪), 제(祭) 속에 숨은 뜻을 알고 싶다면 '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가 좋은 답을 줄 것이다.

책은 예절의 의미를 풀이해주며 전통예절이 고루하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각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 예절 안내서다.

유학자이자 저자 이창일 씨는 예절의 형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과 의미를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랑에도 기술이 있듯이 세상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드는 현명하고 성숙한 삶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예절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축의금을 홀수로 내는 까닭을 음양오행 이론에서 찾았다. 음양오행 이론에서 홀수는 양을, 짝수는 음을 의미한다. 양과 음은 각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인륜지대사라 부를 정도로 중요한 혼인에 양의 기운이 넘치라는 의미에서 홀수로 축의금을 넣는 것이라고 말한다. 1월1일(설날), 3월 3일(삼짇날), 5월 5일(단오) 등 전통사회에서 길(吉)한 날이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다.

궁합은 사람사이의 관계를 중요하는 전통사회에서 혼례를 거절하는 한 방법이었다. 단박에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 '궁합이 좋지 않다'고 표현했던 것이라 하니 궁합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흉하고 나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 명당이라며 명당을 써서 복을 받는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있어서도 올라가면 안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과일일지라도 고인이 평소 즐겼던 음식이라면 괜찮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며 궁금해 하는 예절들을 질문 형식으로 구성해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맹목적으로 따라했던 일들 속에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느껴진다.

발랄하고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읽는 재미를 한층 살려준다. 젊은 철학자의 편안한 말투를 그대로 살려 마치 그 앞에서 강의를 듣는 듯한 친근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부록으로 예절과 관련해 독자들이 더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실었다. 더 진전된 논의나 연구를 소개받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연구논문과 관련 자료를 함께 덧붙였다.

〈예담·1만3천8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통 혼례식에서 신부가 신랑보다 절을 많이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닌 음·양의 이치를 따르는 우리 민족의 예절 때문이다.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 '데미안' 등

책이 흔한 세상이 되었다. 빌려온 책을 베끼면서 밤을 새웠던 일은 아스라한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좋은 책을 만나는 일은 운명을 만나는 일과 같고, 좋지 않은 책을 읽을 만큼 우리 인생은 길지 않다. 또, 내게 좋은 책이라도 만인에게 다 좋을 수는 없어서 책을 권하는 일은 쉽지 않다.

베스트셀러 스타덤에 오른 책의 종류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달라졌다. 부자가 되는 방법, 행복해지는 비법 백 몇 가지, 사회유명인사의 자전적 체험담, 자녀를 일류대학에 합격시킨 부모의 교육방법 등. 이들은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로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보고서들이다. 이런 책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에 미흡하다. 요약된 기술과 방법,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만을 익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가치는 한 때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 같은 것이 아니다. 특정한 경향에 편승하는 일시의 패션도 아니다.

고전을 읽어야 한다. 고전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거센 폭풍과 같은 비판, 높은 사조의 벽, 변덕이 심한 패션을 극복하고 능가하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는 데 있다. 필자는 헤르만 헤세가 쓴 책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권하고 싶다.

방황하는 소년의 이야기'크눌프'를 권한다. 조숙한 소년 크눌프

청소년들에 주는 꿈과 희망

는 휘파람을 멋지게 불 줄 알고 손풍금을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의 감성은 여리고 어여뻤지만 세상의 때가 찌든 연상의 여인 프란찌스카를 사랑하게 되었다. '돈 쓸 줄 아는 사내가 좋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녀의 말에 크눌프의 순결은 진흙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세상의 변두리에 버려진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데미안'을 권하고 싶다. 주인공 싱클레어의 내부적 갈등과 고뇌는 남다르지만 우리들의 유년시절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싱클레어의 친구이며 정신적 성장에 돛을 달아 준 데미안은 말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싱클레어는 인간 내면의 세계와 영감의 세계까지를 파고들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몸부림한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목표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다시 학원으로 내몰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 지방에서 촉망받던 수재 한스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가? 짓누르는 가정과 학교와 어른들의 체면과 권위. 거기 맞서 싸우는 어린 소년 한스는 헤세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싯다르타'를 빼놓고 헤세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헤세의 세계관과 인도 철학을 결합하여 조화로운 리듬으로 읊조리고 싶게 엮은 아름다운 산문시라고 할 수 있다. '싯다르타'는 깊은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헤세의 영혼을 투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헤세는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정원에 대나무를 심고 묵상을 즐겼다는 그는 기독교와 불교의 융합점에 서 있다.

헤세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성의 고귀함을 선양한 작가다. 일시의 영달, 찰라의 이득만을 탐하여 진실한 삶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불행한 시대의 우리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헤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향아〈시인〉

주옥같은 아리아와 명화들의 만남

영화와 오페라 한창호 지음

'영화, 그림 속을 걷다', '영화, 미술의 언어를 꿈꾸다'를 펴낸 바 있는 영화 평론가 한창호씨가 이번에는 영화와 오페라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며 영화뿐 아니라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한 씨가 펴낸 '영화와 오페라'는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명작이 어떻게 조우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영화 '백야'와 오페라 '세빌리야의 이발사', '귀여운 여인'과 '라 트라비아타', '분노의 주먹'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인생은 아름다워'와 '호프만의 이야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삼손과 데릴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와 바그너의 오페라 등 모두 5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돌베개·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무 칼럼니스트가 본 나무 느낌

나무가 말하였네 고규홍 지음

나이들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은 나무다. 서두르는 법 없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비·바람 등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새기며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푸르게 살기 때문이 아닐까.

나무 칼럼니스트라는 생소한 직업을 가진 고규홍 한림대 교수가 나무들의 새살거림을 들어보라며 '나무가 말하였네'를 출간했다. 책은 윤동주, 기형도, 박재삼 쓴 등 유명 시인들이 나무를 노래한 한국 현대시 70편과 10년동안 나무여행을 한 저자가 나무에 대한 느낌과 해설을 함께 담았다.

저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목을 보며 김남주 시인의 힘겨웠던 삶을 떠올리는가 하면 곧추 서있는 미루나무를 보며 도도하면서도 표정이 정겨웠던 추억 속의 여인을 생각한다. 〈마음산책·9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시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풀튜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피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용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곰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핸 010-8004-6669

섬 ● 완도개인독섬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고흥바닷가 매실밭1300평
가든.별장부지 평당5만원

고흥농장.부지최적3천평
차량진입가능.평당2만원

상가부지.
고흥조선소. 버스터미널옆
1300평. 평당 50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티운입구 삼거리)

▶토지매매
·나주시 안동동 관리지역 田답 15,525㎡ 잔밭로 있음 공장부지 등 적합 매매가 4억
·북구 삼각동 주거지역 답래43㎡ 매매가 평당 4억
·광산구 장덕동 생산녹지 畓 1,941㎡ 매매가 2억5,000만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 83,558㎡ 국도변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5,000만원
·북구 각화동 3종 주거지역 면적 427㎡ 매매가 1억7,000만원
·담양군 금성면 산포리 관리지역 임야 1,400㎡ 2차선접 전원주택지 최적 매매가 1억5,00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2차선 국도접 관리지역 6,869㎡ 매매가 1억 6,000만원
·광산구 우림 동원소재지 2종주거지역 396㎡ 매매가 1억3,000만원
·서구 화정동 일등지 298㎡ 빠름 12세대 6층 매매가 1억2,000만원

▶건물매매
·북구 두암동 상업지고 시거리코너 대지 1,023㎡ 건평 5,473㎡ 세보증금 20억에 월4,000만원 용자 18억 매매가 60억
·북구 우산동 우등도시공건노면 대지 208㎡ 건평379㎡ 세보증금 6,000만원 월800만원 매매가 2억7,000만원
·전대 정문앞 대로변코너 대지176㎡ 건물 538.2㎡ 세보증금 8,700만원에 월180만원 매매가 4억
·북구 풍암동 교대앞 대로변 대지 195.4㎡ 건물 697.3㎡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250만원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5억
·북구 일곡동 상업지역 대지 378㎡ 건 1550㎡ 지하1층 지상5층 세2억5,000 노동금에 월800만원 매매가 11억
·북구 운암동 대지 300㎡ 건평 998.6㎡ 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5억 3,000만원에 월440만원 매매가 14억
·북구 우암동 대로변 760㎡ 건평 4,468㎡ 세보증금 14억에 월 3,000만원 매매가 56억
·서구 농성동 대로변코너 대 512㎡ 건평 1,139㎡ 지하1층 지상4층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315만원 용자 5억3천만 매매가 10억
·북구 중흥동 모아이파트앞 대로변 대지 146.3㎡ 2층 135.2㎡ 매매가 1억 4,000만원
·북구 용봉동 현대APT정문앞 대지 370㎡ 건평 약230평 (단층 조립식) 세보증금 4800만원/월180만원 매매가 4억3,000만원
·북구 용봉동 우산주공 정문앞 식당건물(현재성업중) 대지 208㎡ 건평 132㎡ 최고도지 매매가 4억3,000만원

▶급매 고시원매매
·북구 용봉동 상대뒷편 대지 332㎡ 건평 902㎡ 건물 2종A 3층 실85실 월수입 약1600만원 용자 3억8,000만원 매매가 8억5,000만원

▶주유소및 부지매매
·북구 오치동 20m도로변 대지1,480㎡ 주유소 설입중 월매출 약억 매매가 14억
※주유소, 충전소, 물건다량보유, 물건접수환영
※원룸, 고시원 물건다량보유 상담요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태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오치동	주공	17/14층	3천9백	3천1백
치평동	현대	32/5층	1억4천	1억9백
두암동	무등파크	23/16층	6천5백	4천5백
치평동	금호, 대우	24/13층	8천8백	6천1백
금호동	중앙훼스빌	34/4층	1억4천	1억8백
화정동	한양	32/12층	1억1천	7억7백
동림동	유일가든	24/14층	4천5백	3천1백
월계동	쌍용	30/3층(저)	9천5백	6천6백
금호동	로이스빌	39/1층	2억8천	1억9천
두암동	모아미래도	26/7층	1억3천	1억8십
두암동	미리보4차	32/10층	8천3백	5천8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 시무나	156/401	14억	6억1천
화정동 카센타	79/204	5억1천	2억8천
우산동 모텔	185/500	1십5억	5억3천
월계동	100/236	7억3천	4억1천
신안동 모텔	58/223	5억6천	3억1천
누문동	41/34	4억7천	2억6천
송정동(옥)모텔	97/142	5억2천	2억3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용봉동(전대)	52/53	1억3천	7천3백
두암동	53/46	1억2천	6천5백
산수동	27/11	4천4백	1천6백
소태동	125/91	2억9천	1억8천
쌍촌동	100/27	1억6천	1억2천
오치동	70/64	1억6천	9천
두암동	62/41	1억8백	3천9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월산동 11가구	79/123	3억	2억
	용동동 16가구	125	5억	2억8천
	일곡동 17가구	91/224	5억3천	2억3천
상가주택	오치동	77/170	4억8천	2억7천
	신안동	174/141	7억8천	3억5천
	오치동간판	56/95	2억5백	1억1천
	일곡동	63/120	2억7천	1억3천
	지석동	65/91	1억8천	1억3천
	지산동	483/282	10억7천	4억8천
	지산동목욕탕	157/401	14억	6억2천
	운동동	58/98	2억3천	1억4백
	삼각동	83/31	1억9천	1억6백
근린상가	두암동	18/2층	1억3백	3천7백
	매곡동 대화	49/2층	2억8천	1억2천
	월곡동 예총	136/4층	4억8천	1억7천
	월곡동 수산	26/3층	1억8천	5천6백
	봉선동	13/2층	3천3백	1천4백
	전월동 현대	57/3층	1억7천	7천6백
	쌍암동	82/2층	4억6백	1억5천
	두암동	61/2층	1억1천	3천9백
오피스텔	쌍암동	15	4천8백	2천3백
	치평동	18	6천1백	2천7백
	구동	12	3천7백	2천7십
	산수동	30	9천	5천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오선동	120/매트릭	3억3천	1억1천
광산구 지죽동	480/465	11억	6억2천
광산구 용동	106	1억9천	1억5천
나주 남평	599/339	3억2천	2억2천
담양 공장	883/388	3억1천	1억7천
나주 대지	92	4천2백	1천9백

법원경매전문회사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설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심답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근린시설/근린상가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화순읍화순리(축산판매점)/대478건4830	8억3151만	3억7200만
오치동(천고부지)/대3456건3880	5억8127만	4억1388만
쌍촌동(쌍촌삼각빌딩)/대1893건3878	6억2219만	4억8530만
유동(이동통신타리점)/대1105건3044	2억7000만	1억5100만
중흥동(사무실약탕)/대354건1296	10억8000만	4억5100만
나주송월동(건설사무실)/대2107건615	4억5400만	2억5400만
신안동(사무실약탕)/대1682건374	5억5700만	3억1200만

▶근린주택/다세대(빌라)/원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문흥동/세븐스원룸/대181건322	2억3300만	1억400만
월계동/쌍용유통주상/대898건283	14억2900만	6억400만
산수동/화사직한/대631건858	7억8500만	3억5600만
매곡동/약원직원/대426건008	6억8000만	2억8500만
자산동/쌍림/대1587건932	10억7600만	4억8200만
임곡동/쌍림/대901건740	5억2700만	2억2900만
지산동/쌍림/대930건744	5억4000만	3억7800만

▶토지

소재지/지목/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임곡동/대지/438(132.5)	5000만	3890만
신포면내가리/답/5279(1597)	2억2700만	1억5890만
산포면신도리/전/1490.9(451)	8566만	5996만
노안면유곡리/답/2185(661)	3277만	1835만
동림면곡천리/임야/1686(510)	1140만	798만
금천면원곡리/답/1534(464)	3835만	2684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덕동/하남공단/대1569건1309	5억5898만	3억9130만
장성황룡면/대943건600	3억8400만	2억1500만
나주남평읍/대1978건1120	3억1780만	2억2000만
오선동/아파트형/전425㎡/232	3억3100만	1억9800만
영암삼호읍/대3495건2615	7억6580만	5억3610만
무안일로읍/대2730건1228	9억3300만	4억1760만

▶주택

소재지/층/면적(㎡)	감정가	최저가
봉황옥산리/대158.6건219.5	7300만	5110만
쌍촌동(원룸부지)/대330건286.3	1억5900만	1억2700만
중흥동/대133건124.3	1억1700만	6570만
장성읍인평리/대2724건538	9400만	5353만
북문동/대1658건212	1억8200만	1억200만
우산동/대149건193	1억2100만	5438만
산수동/대135.5건93	1억2100만	6813만
송정동/대145건139	7141만	4991만
신안동/대122건137.5	8800만	4944만
광산구안청동/대301건98.5	9400만	6586만

▶아파트

소재지/명칭/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치평동/상무1차무미/82(25)	7300만	5110만
송정동/모아/79(24)	6500만	4550만
쌍촌동/현대/79(24)	7800만	5460만
월곡동/금호/105(32)	8500만	5950만
우산동/현대/142(43)	1억2000만	8400만
진월동/중흥/109(33)	9000만	6300만
송정동/라인1차/79(24)	5600만	3920만
풍암동/대주파크빌/152(46)	1억8000만	1억2600만
삼각동/그린타운/109(33)	1억5000만	7350만
풍암동/동부센트레빌/198(60)	3억3000만	2억3100만